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기 요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지 수준의 조절효과¹⁾

Motivating Factors for Providing Personal Data in MyData Services: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김현정 (Hyeonjeong Kim)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²⁾
권수현 (Soohyun Kwon)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³⁾
최정우 (Jeongu Choi)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⁴⁾
김범수 (Beomsoo Kim)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⁵⁾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데이터 경제에서 중요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효과적 활용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프라이버시 우려, 지각된 유용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식의 영향을 분석한다. 가치기반수용모델과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을 통합하여, 지각된 유용성, 프라이버시 우려, 신뢰, 개인혁신성이 지각된 가치, 지각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및 이용예정자 442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은 SmartPLS 4를 활용한 PLS-SEM 및 Bootstrapping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지각된 유용성은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프라이버시 우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뢰와 개인혁신성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용 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식은 이러한 의도에 대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우려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지각된 유용성, 프라이버시 우려, 개인정보 제공의도

- 1) 이 논문은 정부(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3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정보보안 분야], No. 2023 개인정보보호-005)
- 2) 제1저자, hjkim@barunict.kr
- 3) 공동저자, soosookentelmanis@yonsei.ac.kr
- 4) 공동저자, jeongu0826@yonsei.ac.kr
- 5) 교신저자, beomsookim@gmail.com

논문접수일 2024년 05월 22일 | 1차 수정 2024년 06월 11일 | 게재확정일 2024년 06월 23일

1. 서론

마이데이터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결정권 강화를 기치로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는 산업이다. 유럽연합은 2016년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신설하였다. 한국은 2020년,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중복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동시킬 수 있게 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이러한 개인정보 이동권이나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을 근거로 한다.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2016.12.27.)”,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06.26.)”,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 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1.16.)”을 발표하고 기관별 개인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마이데이터 산업·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공공부문 개인 데이터 개방 및 활용(행정안전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금융위원회, 2018.07.19.)” 등의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현재 금융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복지·부동산 등 생활밀접 분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정책뉴스, 2023.08.17.).

금융위원회는 2019년 2월에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해 데이터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도 2019년부터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응급상황 시 진료기록 공유 서비스, 소상공인 문서·자금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25건의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등 전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2.05.19.). 한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전망하고, 국내·외 혁신 사례 및 비즈니스 전략, 법/제도, 정책 동향, 가치 등을 조망하는 마이데이터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백한중(2019)은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행사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핀테크와 같이 금융 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보기술 서비스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김수현(2022)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자신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인식을 가지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종섭 등(2022)은 오픈뱅킹 기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마이데이터 운영자들은 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해진(2022)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정보제공 행동 연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정보 보안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과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기업의 데이터 판매에 따른 수익 공유 차원에서 혜택 제공 방안을 서비스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용현, 동학림(2023)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에서 데이터 통제, 개인화, 투명성, 즐거움은 인지된 가치에 영향을 미쳤고, 기술성과 정보침해 우려는 인지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에 대해 정부는 데이터 3법과 같은 법제도를 보완하고, 관심 기업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 및 홍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2024.04.04.)’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후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가 2022년 1월에 1,400만명에서 2024년 2월 11,787만명으로 획기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금융자산 부채와 거래내역이 불완전하게 제공되고, 오프라인 영업 및 경영·부수업무 제한, 이용자의 정보 관리가 어렵고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불편함, 제3자 정보제공 및 장기 미사용자 정보 등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에 따른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유용성과 프라이버시 우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서비스 확장에 제약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및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를 위해 2025년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마이데이터 관련 국민 인식 조사결과(2022.01.20.)에 따르면, 마이데이터에 대해 잘 알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일반 국민은 38.7%, 들어본 적이 있거나 전혀 모른다고 한 응답자는 61.3%로 대부분의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 개념인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에 대한 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발한 활용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마이데이터의 유용성에 대해 85.3%가 기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활성화 요인으로 개인정보 보안 강화(56.1%), 데이터 삭제권 보장(18.0%), 앱의 편의성(11.0%) 등을 들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핵심

요인은 개인화 서비스, 프라이버시 우려이다. 지각된 유용성은 개인화 서비스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유용성과 개인화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과도한 정보축적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인식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경제의 핵심 주제인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용 확산을 위해서 프라이버시 우려와 지각된 유용성의 영향을 확인한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정보보안과 관련된 신뢰 요인과 적극적 활용으로 연결될 개인 혁신성 요인이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실무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연구는 가치기반 수용모델과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에 기반한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도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이 두 가지 이론 중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이 가치기반수용모델의 공통요인에 포함될 수 있어 그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에 활용된 변인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그 영향력과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데이터 3법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모든 산업에서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자원이다. 이러한 데이터 간의 연계·결합은 산업 내 또는 산업 간에 무한한 발전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보호’ 측면만 강조하고 활용 측면에서는 소홀하여 4차 산업시대의 데이터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지성우, 2017).

이에 대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삼았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며,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도 시급하였다.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 같은 해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표 1> 참조).

데이터 3법 개정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경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업들은 개인정보 활용 사업에 있어 큰 변화를 보일 것이라 예상되었다. 우선하여 검토되고 있는 분야는 금융 분야로서,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을 기반으로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즉, 마이데이터는 데이터가 관리 및 활용되는 체계가 현재 사업자 중심에서 정보 주체 중심으로 전환되어 여러 기업과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개인이 쉽게 모아서 확인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처리 및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손창용 등, 2022 재인용). 마이데이터의 핵심인 개인정보이동권은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을 의미하며,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면 정보처리자는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이는 정보주

<표 1> 데이터 3법 주요 개정 목적과 내용

법률명	개정 목적	주요 개정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혼란 방지와 체계적 정책 추진 ○ EU GDPR 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 ○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화 ○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정보통신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 관련 다른 법령과의 유사·중복조항 정비와 협치(거버넌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신용정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와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장치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금융분야 데이터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 선진화 ○ 새로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 정비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이터 3법 정리

체인 고객의 명시적 동의 아래, 제3사업자가 고객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보 보유기관은 표준화된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기업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개인 중심의 활용 체계로 전환하고 필요한 법적 권한 및 시스템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이를 구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데이터 소유권 강화, 정보 투명성 및 접근성 향상,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혁신 촉진, 의사결정 개선,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데이터 보안 문제, 개인정보 보호 침해, 과도한 규제, 데이터의 편향과 오류, 사용자의 데이터 이해도 부족,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위험 요인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사용자의 동의로 여러 기관에 흩어진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는 나에게 필요하고 유리한 특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및 마케팅을 극대화한 서비스 제공으로 성장할 도모할 수 있다(한국재정정보원, 2021.05.26.).

2.2. 가치기반수용모델과 프라이버시 계산이론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용으로 기대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혜택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같은 다양한 위험 요인은 가치기반수용모델(Value-Based Adoption Model) 또는 프라이버시 계산이론(Privacy Calculus Theory)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가치기반수용모델은 새로운 ICT 사용자의 가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지각된 편익(benefit)과 손실(sacrifice)을 지각된 가치 요소로 분류하는 것을 통해 기술과 서비스의 사용의

도를 설명한다. 지각된 가치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발생하는 지각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도출한 결과를 의미한다(Lin et al., 2012). 지각된 편익과 지각된 손실 요인은 각각 유용성과 즐거움, 기술적 특성과 지각된 비용으로 나누어진다. 유용성은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지각하게 되는 추가치 혹은 특정 기술 및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과의 향상이라 할 수 있다(Davis et al., 1989; Rogers, 1995). 즐거움은 제품이나 제품의 사용 그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면 이는 기술 수용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Kim et al., 2017). 기술적 특성은 시스템이나 서비스 사용을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나 제품 구매와 사용 시에 지각하는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지각된 비용은 제품의 실제 가격에 대한 지출이나 지불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을 기반으로 한다(Kim et al.,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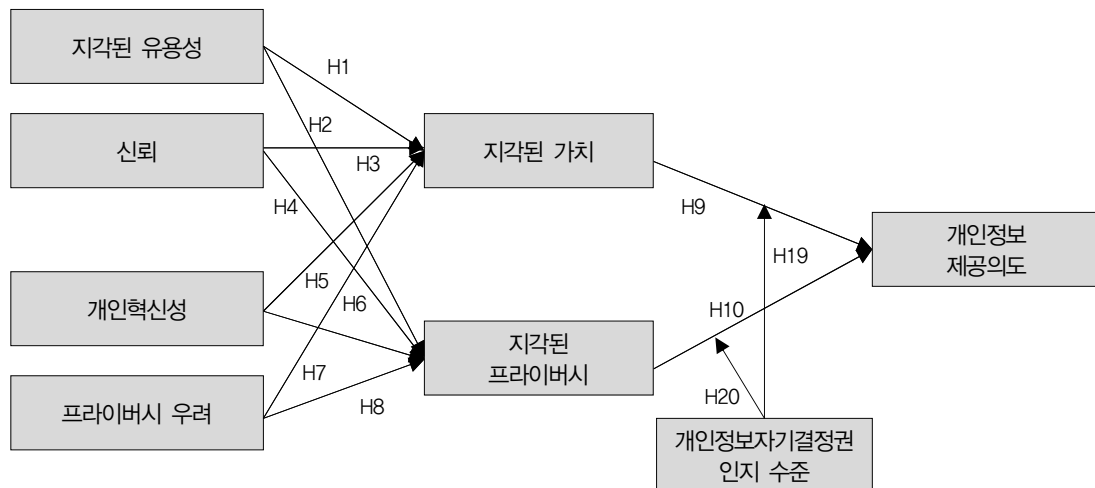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은 개인이 긍정적 결과는 최대화되고, 부정적 결과는 최소화되도록 행동한다는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기반한 이론이다. 프라이버시 계산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개념으로 정의된다.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요구될 때, 개인의 이익과 위협에 대한 프라이버시 계산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김종기, 김상희, 2012; 박동근 등, 2023; Dinev et al., 2006; 장형여, 이세진, 2022 재인용).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 평가하는 프라이버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서비스를 통해 얻는 이익이 위협보다 크거나 최소한 균형을 이룰 때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Culnan & Bies, 2003). 최근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용과 이익이 상호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Dinev et al. 2013). 여기서 상호작용

은 리스크가 클수록 이익이 과소 평가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위험이 큰 것은 그만큼 큰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인식은 위험이 큰 것을 거부하려는 심리적 저항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가치와 프라이버시 계산을 구성하는 요소로 활용할 변인은 프라이버시 우려와 신뢰, 지각된 유용성과 개인혁신성이다.

3.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 지각된 유용성, 신뢰와 개인혁신성, 프라이버시 우려가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를 매개로 개인정보 공개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3.1. 연구모형



※ H11 ~ H18: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의 매개효과 가설

〈그림 1〉 연구모형

3.2. 선행변인(지각된 유용성, 신뢰, 개인혁신성, 프라이버시 우려)과 지각된 가치, 지각된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가치기반수용모델과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에서는 공통적으로 지각된 편익(혜택)과 지각된 손실(위험)을 비교해 다음 행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표 2>에서와 같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혜택, 지각된 손실의 선행변인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 신뢰, 개인혁신성, 프라이버시 우려를 선행변인으로 검토한다.

지각된 유용성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생활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개인의 믿음 정도를 의미한다(강나영 등, 2022). 중국에서 모바일 정부 지속적 사용에 대해 기술수용모델(TAM)을 확장하여 모바일 정부 사용자의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했는데 이동성, 지각된 유용성, 보안이 지각된 가치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Wang, 2014).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유용성은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

〈표 2〉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변인

문헌	독립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	종속변인
손창용 등(2022)	자기정보통제권, 금융편의성, 개인화서비스	지각된 가치	개인혁신성, 기술적보안	금융 마이데이터 수용의도
백한중(2019)	지각된 보안위험, 지각된 프라이버시 위험, 지각된 심각성, 혁신저항, 지각된 사용용이성,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의지, 지각된 유용성	성별, 연령, 경험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용의도
이종섭 등(2022)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통제성, 신뢰성, 경제성, 개인화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비용, 프라이버시 우려, 지각된 가치		이용의도
정해진, 이진혁(2022)	Internet skills, Privacy risk, Privacy concerns	Privacy cynicism		Privacy protection intention
정해진(2022)	프라이버시 우려,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지식역량	프라이버시 위험, 프라이버시 이익		프라이버시 정보제공행동
김수현(2022)	편리성, 유용성, 보안성, 통제성			이용의도
강나영 등(2022)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금융지식, 마이데이터 인지여부			용이성, 유용성,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혁신저항
조성훈 등(2022)	성과 기대(상품 비교/추천),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경제성, 개인화, 기술 복잡성, 프라이버시 우려	지각된 가치	개인 혁신성	이용 의도

었다(조용현, 동학립, 2023). 마이데이터 서비스 속성이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편리성, 유용성, 통제성과 같은 속성들이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현, 2022).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특성과 수용 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마이데이터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분야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특성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수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 것으로, 자기정보통제권, 금융편의성, 개인화서비스는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가치는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손창용 등, 2022). 음성 비서의 지각된 유용성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계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지각된 프라이버시를 매개하는 것을 보여주었다(Saavedra et al., 2023). 따라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프라이버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뢰란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긍정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와 일치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한다(OECD, 2017). 개인과 조직 간 신뢰는 직원에 대한 신뢰와 기업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신뢰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Sirdeshmukh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신뢰는 서비스 제공자가 약속한 내용에 대한 기대(Sirdeshmukh et al., 2002)와 신뢰성 및 성실성 측면에서 서로에 대한 의지(Moorman et al., 1992)를 포함하는 성과(Pizzutti dos Santos & Basso, 2012)를 기반으로 한다(Morgan & Hunt, 1994).

중국에서 진행된 모바일 बैं킹 수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모바일 뱅킹의 혜택과 손실을 제안하고 소비자의 모바일 뱅킹 채택 의도에 대한 지각된 가치의 영향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지각된 가치가 소비자의 모바일 뱅킹 채택 의도에 주된 영향을 미치며, 신뢰가 소비자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Xiong, 2013). 또한,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미디어가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보안 위협과 개인 정보보호 위협은 초기 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가치, 자기효능감 및 초기 신뢰는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Du et al., 2022). SNS 사이트의 프라이버시 계산 연구에서는 신뢰 개념을 서비스 제공자, 법적 보장, 구성원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고, SNS에서 정보공유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Krasnova & Veltri, 2012). 이때, 법적 보장에 대한 신뢰는 기존의 법이 SNS에서 공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는 SNS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직하게 사용할 것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김상희, 이종기, 2017). 또한 Chang et al. (2018)은 프라이버시 경계관리 모델을 제안하면서 신뢰가 지각된 프라이버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신뢰는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지각된 프라이버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은 새로운 서비스를 수용하려는 의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혁신성이 높은 이용자는 개방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새로운 기술 수용에 긍정적인 성향을 보인다. 혁신확산이론에서 제시한 혁신수용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대적 이점, 개인의 신념, 기존 가치관, 과거

경험, 적합성, 복잡성, 시험가능성, 가능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제품 수용에 미치는 소비자의 혁신성과 조절 초점의 효과연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목표 또는 동기가 긍정적이고 소비자의 혁신성이 높을 경우, 사용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병관, 조은현, 2009). 또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특성과 수용의도의 관계에서 개인의 혁신성과 기술적 보안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특성이 개인의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가치가 수용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손창용 등, 2022). 개인의 혁신성이 자기정보결정권, 개인화 서비스와 지각된 가치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용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프라이버시 우려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기능적, 쾌락적, 사회적, 인지적 측면의 다차원적 소비자 혁신성을 적용하여 프라이버시 우려와 실제 행동 간의 관계를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허덕원, 송옥준, 2021). 연구 결과, 모든 그룹에서 쾌락적 혁신성이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기능적 혁신성은 여성 그룹에서 부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남성 그룹에서는 프라이버시 우려와 기능적 혁신성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대상으로 한 기술혁신제품의 수용에 미치는 개인특성 및 시스템 특성의 영향 연구에서 개인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비용이, 시스템 특성인 보안성과 혁신성이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철우, 정해주, 2012). 따라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개인혁신성은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5: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개인혁신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혁신성은 지각된 프라이버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프라이버시 우려는 프라이버시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개념으로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 느끼는 걱정이나 두려움의 정도로서, 사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실제적 위협과 위협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김상희, 이종기 (2017)의 연구에서 프라이버시 우려는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프라이버시 위협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선행 요인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Malhotra et al. (2004)는 기업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걱정하는 정도인 프라이버시 우려가 증가할수록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해 기대되는 잠재적 손실도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프라이버시 우려와 제도적 신뢰가 프라이버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전자상거래와 위치기반서비스 분야를 비교하여 프라이버시 우려와 제도적 신뢰가 프라이버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허덕원, 성욱준, 2021). 프라이버시 우려와 더불어 다차원적인 소비자 혁신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신기술 기반 서비스 채택 양상을 다양하고 균형 있게 설명·예측할 수 있다는 점과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이용자의 즐거움과 더불어 해당 서비스가 보안 안전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허덕원, 성욱준, 2021).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프라이버시 우려가 지각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조용현, 동학림, 2023). 또한 Chang et al. (2018)은 프라이버시 경계관리 모델을 제안하면서 프라이버시 우려가 지각된 프라이버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프라이버시 우려와는 달리, 지각된 프라이버시는 개

인이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사용자의 경험과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프라이버시 우려가 높으면 지각된 프라이버시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사용자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프라이버시 우려가 낮으면 지각된 프라이버시는 높아지며, 이는 사용자가 서비스나 플랫폼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한다(Chang et al., 2015). 이러한 관계는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과 실제 보안 조치의 효과성 사이의 상호작용에 기반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버시 우려는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7: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버시 우려는 지각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프라이버시 우려는 지각된 프라이버시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지각된 가치, 지각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공개 의도 간의 관계

지각된 가치는 수용(adooption)과 지속적 의도의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간주 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자가 IS 초기 사용에서 얻은 가치가 클수록 사용자가 지각하는 지속적 사용 의도가 높아진다고 제안했으며(Wang, 2014), 중국의 모바일 정부 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 모바일, 개인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정부 사용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Wang et al., 2020). 따라서 사용자가 모바일 정부가 자신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한다고 인식할 때, 모바일 정부 사용에 대한 그들의 지속적 사용 의도가 강화될 것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개인정보 공개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모바일 사용자들이 개인화된 서비

스와 같은 지각된 혜택을 중시하며, 이러한 혜택이 개인 정보 공개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Wang et al., 2016).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에서의 개인 정보 공개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IoT 서비스 사용자들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에 신뢰, 지각된 프라이버시 위험, 지각된 혜택 및 정보 민감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Pal et al., 2021). 따라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 공개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9: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가치는 개인정보 공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지각된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 공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의 매개효과

가치기반수용모델에서 지각된 가치는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매개하는 것을 보여준다. 지각된 혜택의 요인으로는 지각된 유용성과 즐거움, 서비스 품질 등이 있으며, 지각된 손실은 지각된 비용과 프라이버시 우려 등의 요인이 있다(Kim et al., 2007).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은 개인이 정보제공과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이익 분석하여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금전적 보상,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 자기표현 등이 있다(Krasnova & Veltri, 2010; Li et al., 2010).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른 위험은 대체로 프라이버시 우려로 나타났다. Dong et al. (2017)은 중국에서 외국인이 B2C 모바일 앱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신뢰와 사용의도 사이를 지각된 프라이버시가 매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Kehr et al. (2015)는 지각된 정보공개 위험과 정보공개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프라이버시

가 매개 역할을 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는 선행요인인 지각된 유용성, 신뢰, 개인혁신성과 프라이버시 우려가 개인정보 공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1: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개인정보 공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지각된 가치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12: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개인정보 공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지각된 프라이버시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13: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개인정보 공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지각된 가치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14: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개인정보 공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지각된 프라이버시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15: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개인혁신성과 개인정보 공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지각된 가치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16: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개인혁신성과 개인정보 공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지각된 프라이버시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17: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버시 우려와 개인정보 공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지각된 가치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18: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버시 우려와 개인정보 공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지각된 프라이버시가 매개할 것이다.

3.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지 수준의 조절효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개인정보 통제는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개인정보 통제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Prince, 2018).

따라서 개인정보 통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 통제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데이터 3법의 핵심 의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것으로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과 개인정보동의권을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과 개인정보동의권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이 두 권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지 여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 공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9: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가치와 개인정보 공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지 수준이 조절할 것이다.

가설 20: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지각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공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지 수준이 조절할 것이다.

4.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4.1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개발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각된 유용성, 신뢰, 개인혁신성, 프라이버시 우려가 독립변인으로,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를 매개변인으로, 개인정보 제공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데이터 3법의 인지 여부를 조절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인의 문항은 선행연구로부터 차용하거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환경에 맞게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 연구는 <표 3>과 같다. 최종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로 ‘1 -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4.2. 자료 수집 및 특성

연구모형에서 제안한 가설과 연구모형 검증에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및 이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인바이트)에 의뢰하였다. 설문에 앞서 측정도

<표 3>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 문헌

변인	조작적 정의	관련 문헌
지각된 유용성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정도	강나영 등(2022)
신뢰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정도	Chang et al.(2015)
개인혁신성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수용하려는 의지의 정도	손창용 등(2022)
프라이버시 우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의 유출, 부적절한 사용과 오류 및 결함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	Chang et al.(2015)
지각된 가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혜택과 손실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형성되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의 정도	Kim et al.(2007)
지각된 프라이버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나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가에 관한 주관적 평가	Chang et al.(20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지 수준	마이데이터 사업의 전제 조건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지 수준	직접 작성
개인정보 제공의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지의 정도	박천웅(2014)

형의 통계적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이데이터를 사용하는 2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본 설문은 2024년 4월 1일부터 5일간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실시하여 500명의 설문을 수집하였다. 이 중 설문 응답에서 이상치를 제거한 44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설문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설문 대상자 중 남성은 218명으로 49.3%, 여성은 224명으로 50.7%이며, 마이데이터 이용자는 266명으로 60.2%에 해당하며, 이용예정자는 176명으로 39.8%이다. 마이데이터 이용자 중 1년 이상 사용자가 177명으로 66.5%, 6개월 이상 1년 미만 이용자가 25.6%로, 6개월 이상 이용자가 92.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온라인 banking 이용자는 99.1%로 거의 모든 응답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30대 응답자가 15.4%로 가장 낮은 비율이며, 50대 이용자가 23.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5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학생(5.4%)과 영업/판매직(6.3%)에서 낮은 비율을 보인다. 월소득은 300만원 미만(43.0%), 500만원 미만(30.1%)으

로 전체의 73.1%가 5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결과

연구결과 분석을 위해 SmartPLS 4의 PLS-SEM과 Bootstrapping(반복 횟수 10,000회), PLS-MGA (Multi-Group Analysis), PLS-Predictive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모형에 대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설문 데이터 분석 시 지각된 가치 3번 문항, 프라이버시 우려 2번 문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지 수준 3번 문항은 문항 신뢰도 평가에서 낮게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1.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은 변인의 내적 일관성, 판별타당성과 수렴 타당성을 측정하여 검증한다. <표 5>와 <표 6>에서 보듯이 크론바흐 알파가 0.7 이상이고 복합신뢰도도 0.70과 0.95 사이에 있으므로 내적 일관성을 충족한다.

<표 4> 인구통계적 특성

변인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18	49.3	
	여	224	50.7	
연령대	20대 이하	90	20.4	
	30대	68	15.4	
	40대	94	21.3	
	50대	102	23.1	
	60대 이상	88	19.9	
마이데이터	이용 여부	이용	266	60.2
		이용 예정	176	39.8
	사용 기간	1년 이상	177	66.5
		6개월~1년 미만	67	25.2
		3개월~6개월 미만	14	5.3
		3개월 미만	8	3.0
		이용자 대상 소계	266	100.0

변인	항목	빈도(명)	비율(%)
온라인 banking	사용	438	99.1
	미사용	4	0.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3	12.0
	대학교 재학/졸업	326	73.8
	대학원 재학/졸업	63	14.3
직업	사무/관리직	245	55.4
	영업/판매직	28	6.3
	전문직/연구직	48	10.9
	학생	24	5.4
	기타	97	21.9
월소득	300만원 미만	190	43.0
	300~500만원 미만	133	30.1
	500~700만원 미만	69	15.6
	700만원 이상	50	11.3

(표 5)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잠재변인	설문문항	외부 적재치	크론 바흐 α	복합 신뢰도(ρ_c)	AVE
개인정보 제공의도	1. 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본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할 의향이 있다.	0.755	0.821	0.882	0.653
	2. 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본정보 외에 추가 정보(소득, 신용 등)를 요청하면 제공할 의향이 있다.	0.876			
	3. 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본정보 외에 민감정보(건강정보, 종교, 정치 성향 등)를 요청하면 제공할 의향이 있다.	0.774			
	4. 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정보제공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제공할 의향이 있다.	0.820			
지각된 가치	1. 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로부터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위험을 상쇄한다고 생각한다.	0.912	0.819	0.917	0.847
	2. 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로부터 맞춤형 정보를 수신함으로써 얻는 가치가 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0.928			
지각된 프라이버시	1. 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0.857	0.862	0.915	0.783
	2. 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내 개인정보의 숫자와 수준에 만족한다.	0.890			
	3. 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0.906			
지각된 유용성	1.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내 생활(금융 등)에 도움이 된다.	0.825	0.864	0.907	0.710
	2.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생활(금융 등)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0.843			
	3.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유익한 생활(금융 등)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0.862			
	4.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나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0.840			
신뢰	1. 내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방식에 관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 보안정책을 보면 회사가 신뢰할 만하다는 느낌이 든다.	0.836	0.919	0.936	0.708
	2.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 보안정책을 보면 회사를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0.843			
	3. 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은 회사를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0.875			
	4.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 보안정책을 보면 회사가 신뢰할 만하다는 느낌이 든다.	0.856			
	5.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 암호화 수준과 기타 보안 조치를 하는 것을 보면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0.804			
	6.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자사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통지를 하는 것을 보고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0.834			
개인혁신성	1. 나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 비해 먼저 수용하고 이용한다.	0.900	0.861	0.915	0.781
	2. 나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많다.	0.857			
	3. 나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0.894			
프라이버시 우려	1. 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제공하는 내 개인정보가 잘못 사용될지 걱정된다.	0.926	0.912	0.944	0.849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이 걱정된다.	0.909			
	4. 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걱정된다.	0.930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인지 수준	1. 나는 데이터 3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0.922	0.863	0.935	0.878
	2. 나는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0.951			

<표 6> Heterotrait-monotrait ratio (HTMT)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정보제공의도										
(2) 지각된 가치	0.813									
(3) 지각된 프라이버시	0.783	0.831								
(4) 지각된 유용성	0.741	0.731	0.705							
(5) 신뢰	0.578	0.546	0.540	0.718						
(6) 개인혁신성	0.526	0.479	0.446	0.513	0.474					
(7) 프라이버시 우려	0.167	0.221	0.298	0.058	0.053	0.067				
(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지 수준	0.334	0.334	0.415	0.264	0.220	0.495	0.068			
(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지 수준 x 지각된 프라이버시	0.174	0.153	0.111	0.105	0.108	0.147	0.154	0.214		
(1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지 수준 x 지각된 가치	0.135	0.155	0.156	0.038	0.094	0.132	0.140	0.171	0.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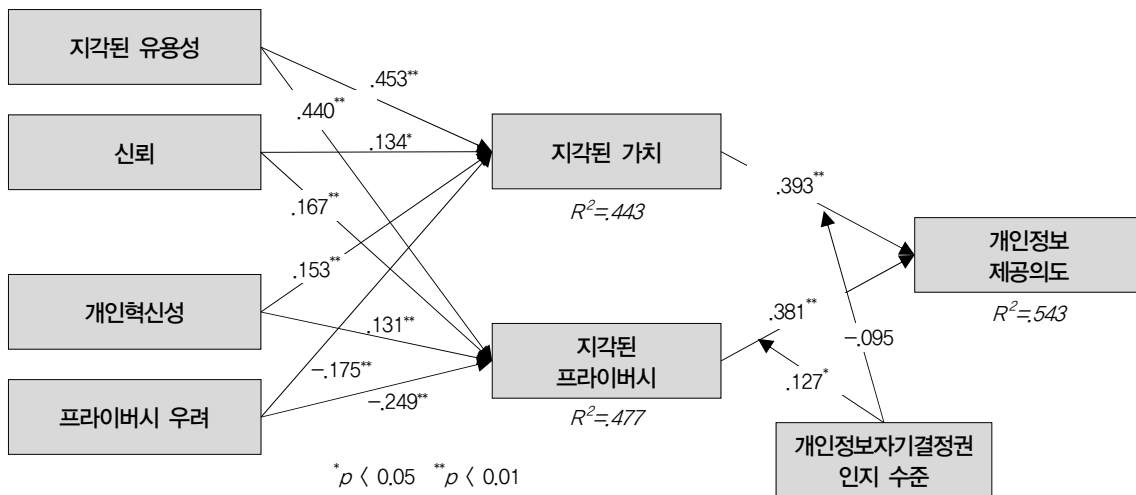
또한 HTMT가 0.85 이하이므로 판별타당성이 충족되며, 외부적재치(Outer Loading)가 0.708 이상이고 평균분산 추출(AVE)이 0.5 이상이므로 수렴타당도도 충족되었다 (Henseler et al., 2015; Ringle et al., 2023; Hair Jr et al., 2021). 따라서, 모든 측정값이 충족되므로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2.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검증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그림 2>와 같이 구조모형을 평가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준화 평균 제곱근 잔차(SRMР,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NFI(Normed Fit Index), 내부 다중공선성(Inner VIF), 회귀모델 결정계수(수정된 R²), 모형의 예측적 적합도(Q²)을 평가하여 검증한다(Sarstedt et al., 2021).

각 적합도 지표에 대한 기준은 SRMR이 0.08 미만, d_ULS 2.00 초과, d_G 0.90 초과, 카이제곱이 5 미만, NFI가 0.9 이상이어야 한다(Hair Jr et al., 2021). <표 7>에서 추정모형의 표준화 평균 제곱근 잔차(SRMR)는 포화모형 0.060, 추정모형 0.076으로 모두 기준값 0.08 미만에 해당하므로 기준을 충족한다. 표준적합지수(NFI)는



<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

0과 1.0 사이의 값을 가지며, 1.0에 가까울수록 적합하다고 한다. 여기서는 포화모형 0.805, 추정모형 0.8791로 적정기준 0.9보다 작지만, 수용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화모형과 추정모형의 d_ULS 값과 d_G 값은 각각 1.354, 0.571과 2.166과 0.634로, 포화모형 값이 더 작으므로 포화모형이 추정모형보다 더 적합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포화모형 카이제곱값은 1633.674로 추정모형 카이제곱값 1745.384보다 작으므로 포화모형의 적합도가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회귀모형 결정계수(수정된 R²)의 설명력은 0.75, 0.50,

0.25 기준으로 상당한 수준, 중간 수준, 약한 수준으로 평가하는데(Henseler et al., 2009; Hair et al., 2011), <표 8>에서 보듯이 0.435~0.529로 중간 수준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또한, 모형의 예측적 적합도(Q²)도 0보다 크므로 적합함을 보여준다. 잠재변인의 다중공선성은 내부 분산 팽창지수(Inner VIF)가 3.0 이하일 경우 적합하다고 보는데, <표 9>에서와 같이 값의 범위가 1.004~2.748로 기준에 부합하므로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측정값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확보되었다 볼 수 있다.

<표 7> 모형 적합도 결과

지표	포화모형	추정모형
SRMR	0.060	0.076
d_ULS	1.354	2.116
d_G	0.571	0.634
Chi-square	1633.674	1745.384
NFI	0.805	0.791

<표 8> 모형의 예측적합도와 회귀모형 결정계수

	Q ² predict	R ²	수정된 R ²
개인정보 제공의도	0.420	0.534	0.529
지각된 가치	0.427	0.443	0.438
지각된 프라이버시	0.462	0.477	0.472

<표 9> 내생 잠재변인의 다중공선성(내부 VIF)

잠재변수	(1)	(2)	(3)	(4)	(5)	(6)	(7)	(8)	(9)	(10)
(1) 개인정보 제공의도										
(2) 지각된 가치	1.976									
(3) 지각된 프라이버시	2.093									
(4) 지각된 유용성		1.836	1.836							
(5) 신뢰		1.789	1.789							
(6) 개인혁신성		1.296	1.296							
(7) 프라이버시 우려		1.004	1.004							
(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지 수준	1.185									
(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지 수준x지각된 프라이버시	2.748									
(1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지 수준x지각된 가치	2.716									

5.3.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가설검증 결과는 <표 10>과 같다. 지각된 유용성, 신뢰, 개인혁신성은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1, H2, H3, H4, H5, H6 채택). 그러나 프라이버시 우려는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에 부(-)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7, H8 채택).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는 정보제공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9, H10 채택).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지 수준이 지각된 가치와 정보제공의도와의 관계를 95% 유의수준에서는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19 기각, $p < 0.1$), 지각된 프라이버시와 정보제공의도와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20 채택).

또한, <표 11>과 같이 특정간접효과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를 살펴본 바,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의 매개효과는 지각된 유용성, 신뢰, 개인혁신성과 개인정보 제공의도 간에 정(+)¹의 방향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가설(H11~H16)이 채택되었으며, 프라이버시 우려는

<표 10> 가설검증 결과

경로	Original	STDEV	t	p	가설
H1: 지각된 유용성 → 지각된 가치	0.453**	0.058	7.867	0.000	채택
H2: 지각된 유용성 → 지각된 프라이버시	0.440**	0.058	7.569	0.000	채택
H3: 신뢰 → 지각된 가치	0.134*	0.056	2.399	0.016	채택
H4: 신뢰 → 지각된 프라이버시	0.167**	0.061	2.746	0.006	채택
H5: 개인혁신성 → 지각된 가치	0.153**	0.047	3.282	0.001	채택
H6: 개인혁신성 → 지각된 프라이버시	0.131**	0.043	3.060	0.002	채택
H7: 프라이버시 우려 → 지각된 가치	-0.175**	0.037	4.667	0.000	채택
H8: 프라이버시 우려 → 지각된 프라이버시	-0.249**	0.037	6.732	0.000	채택
H9: 지각된 가치 → 개인정보 제공의도	0.393**	0.051	7.751	0.000	채택
H10: 지각된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제공의도	0.381**	0.054	7.027	0.000	채택
H1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지 수준 x 지각된 가치 → 개인정보 제공의도	-0.095	0.054	1.760	0.078	기각
H2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지 수준 x 지각된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제공의도	0.127*	0.059	2.175	0.030	채택

* $p < 0.05$ ** $p < 0.01$

<표 11> 특정 간접효과 검증 결과

경로	Original	STDEV	t	95% Bca CI	p	가설
H11: 지각된 유용성 → 지각된 가치 → 개인정보 제공의도	0.178**	0.033	5.432	[0.116, 0.243]	0.000	채택
H12: 지각된 유용성 → 지각된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제공의도	0.168**	0.034	4.908	[0.105, 0.238]	0.000	채택
H13: 신뢰 → 지각된 가치 → 개인정보 제공의도	0.053*	0.023	2.289	[0.011, 0.101]	0.022	채택
H14: 신뢰 → 지각된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제공의도	0.064*	0.025	2.586	[0.017, 0.113]	0.010	채택
H15: 개인혁신성 → 지각된 가치 → 개인정보 제공의도	0.060**	0.021	2.889	[0.023, 0.104]	0.004	채택
H16: 개인혁신성 → 지각된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제공의도	0.050**	0.019	2.646	[0.018, 0.091]	0.008	채택
H17: 프라이버시 우려 → 지각된 가치 → 개인정보 제공의도	-0.069**	0.018	3.925	[-0.105, -0.037]	0.000	채택
H18: 프라이버시 우려 → 지각된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제공의도	-0.095**	0.018	5.164	[-0.133, -0.061]	0.000	채택

* $p < 0.05$ ** $p < 0.01$

부(-)의 방향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가설(H17, H18)이 채택되었다.

5.4. 마이데이터 이용자와 이용예정자 집단의 차이 분석

PLS-SEM 다중집단 분석(MGA)은 두 집단 간의 변인 간 관계의 유사한 패턴이나 중요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Matthews, 2017).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 마이데이터 이용자와 이용예정자 집단 사이의 매개변수 추정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테스트하고, 지각된 가치와 지각

된 프라이버시가 정보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PLS-SEM에서 다중집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 불변성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복합 모델의 측정 불변성(MICOM) 절차를 사용하였다. MICOM은 ① 구성 불변성, ② 구성 요소 불변성, ③ 복합 평균과 분산 불변성을 3단계 접근법으로 분석한다(Henseler et al., 2016). 먼저, 이 연구에서 각 구조의 항목들이 동일하며, 데이터 처리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계산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되었으므로 구성 불변성이 확보되었다. 다음 단계로 지각된 유용성, 신뢰, 개인혁신성, 프라이버시 우

〈표 12〉 마이데이터 이용자와 이용예정자의 다중집단분석(MGA) 결과

경로	마이데이터 이용자 vs 예정자		마이데이터 이용자				마이데이터 이용예정자			
	차이	p	Org.	STDEV	t	p	Org.	STDEV	t	p
지각된 유용성 → 지각된 가치	-.174	.116	.378**	.075	5.057	.000	.552**	.081	6.806	.000
지각된 유용성 → 지각된 프라이버시	-.084	.514	.402**	.072	5.602	.000	.486**	.105	4.630	.000
신뢰 → 지각된 가치	-.057	.601	.113	.073	1.536	.125	.170*	.080	2.122	.034
신뢰 → 지각된 프라이버시	-.041	.733	.151*	.076	1.980	.048	.191	.107	1.789	.074
개인혁신성 → 지각된 가치	.089	.327	.191**	.065	2.956	.003	.101	.065	1.570	.116
개인혁신성 → 지각된 프라이버시	.083	.350	.174**	.053	3.278	.001	.091	.072	1.272	.203
프라이버시 우려 → 지각된 가치	-.154*	.043	-.242**	.052	4.673	.000	-.088	.056	1.566	.117
프라이버시 우려 → 지각된 프라이버시	.014	.844	-.248**	.046	5.387	.000	-.262**	.062	4.239	.000
지각된 가치 → 개인정보 제공의도	-.119	.251	.341**	.064	5.338	.000	.460**	.081	5.660	.000
지각된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제공의도	.189	.097	.465**	.064	7.264	.000	.275**	.095	2.904	.004
지각된 유용성 → 지각된 가치 → 개인정보 제공의도	-.125	.056	.129**	.036	3.539	.000	.254**	.055	4.615	.000
지각된 유용성 → 지각된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제공의도	.053	.456	.187**	.043	4.303	.000	.134*	.059	2.287	.022
신뢰 → 지각된 가치 → 개인정보 제공의도	-.040	.416	.038	.026	1.467	.142	.078	.041	1.906	.057
신뢰 → 지각된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제공의도	.017	.723	.070	.037	1.881	.060	.053	.034	1.565	.118
개인혁신성 → 지각된 가치 → 개인정보 제공의도	.018	.644	.065*	.026	2.465	.014	.047	.032	1.477	.140
개인혁신성 → 지각된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제공의도	.056	.134	.081**	.027	2.972	.003	.025	.025	1.009	.313
프라이버시 우려 → 지각된 가치 → 개인정보 제공의도	-.042	.239	-.082**	.025	3.292	.001	-.040	.026	1.534	.125
프라이버시 우려 → 지각된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제공의도	-.043	.260	-.115**	.028	4.191	.000	-.072**	.027	2.679	.00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지 수준 x 지각된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제공의도	-.011	.945	.124	.066	1.873	.061	.136	.117	1.163	.24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지 수준 x 지각된 가치 → 개인정보 제공의도	.064	.611	-.073	.062	1.187	.235	-.137	.109	1.256	.209

* $p < 0.05$ ** $p < 0.01$

려, 지각된 가치, 지각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지 수준, 정보제공의도의 순열(permutation) p-값은 각각 0.285, 0.300, 0.340, 0.405, 0.474, 0.724, 0.867, 0.975로 모두 유의적이지 않으므로, 구성 요소 불변성도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복합 평균의 불변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개인혁신성의 p-값이 0.002와 0.001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복합 분산의 불변성은 0.162, 0.435, 0.082, 0.126, 0.217, 0.307, 0.438, 0.413으로 모두 유의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복합 평균과 분산의 불변성도 확보되었으므로 집단 간 경로계수를 비교할 수 있다.

<표 12>는 SmartPLS 부트스트래핑 다중집단 분석 결과로, 집단 간 변인의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두 집단의 차이 비교에서 프라이버시 우려와 지각된 가치 관계에서만 부(-)의 방향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마이데이터 이용자 집단과 이용예정자 집단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두 집단 각각에서 개인혁신성과 프라이버시 우려가 지각된 가치, 신뢰와 개인혁신성과 프라이버시 우려가 지각된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마이데이터 이용자 집단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이용예정자 집단에서는 신뢰와 지각된 가치와의 관계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이용예정자 집단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프라이버시 우려보다 더 크게 나타나므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용이 이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6. 결론 및 시사점

6.1. 연구결과 토의

마이데이터 산업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결정권 강화를 기치로 세계 각국에서 추진

하는 산업이다. 한국은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반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였고, 제도적 측면의 보완과 공공분야 마이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사용 범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초기에는 서비스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확산을 위한 요인 탐색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성화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여러 요인 중에서 가치기반수용모델의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손실,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의 지각된 위험과 지각된 혜택 요인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각된 유용성, 신뢰, 개인혁신성과 프라이버시 우려와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대한 영향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의 매개효과와 마이데이터 사업의 기반이 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지 수준이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지각된 유용성과 프라이버시 우려는 개인정보 제공의도와와의 관계에서, 선행연구와 같이 지각된 유용성은 매개변인인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프라이버시 우려는 기업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걱정하는 정도로 프라이버시 우려가 커질수록 개인정보 제공에 부정적이며, 프라이버시 우려가 지각된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에게 유용하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심각하지 않게 느끼면, 이에 따라 개인정보도 제공할 것이라 예상되는 것이다.

둘째, 신뢰는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잘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고, 개인혁신성향은 새로운 기술 수용에

긍정적인 성향이다. 이용자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목표 또는 동기가 긍정적이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뢰를 느끼면 수용의도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와 개인혁신성향이 높은 이용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이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담도 높지 않다면, 이 서비스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것이다.

셋째, 지각된 가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혜택과 손실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형성되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의 정도로, 혜택이 크다고 느끼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지각된 프라이버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하는 것에 관한 주관적 평가 정도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잘 관리할 것으로 생각되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에서 보듯이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 제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가치기반수용모델 연구에서 지각된 가치는 선행변인과 수용의도 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에서는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의 차이에 따라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정도를 지각된 프라이버시로 정의하였는바, 이 변인도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인들과 개인정보 제공의도 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프라이버시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데이터 3법의 핵심의제이며,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과 개인정보동의권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지 수준이 지각된 가치 및 지각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공개 의도 간에 미치는 영향관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프라이버시만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지 수준이 지각된 가치 관점에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지만,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가치기반수용모델과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을 통합하여 적용한 연구모델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인 개인정보 제공의도 간의 영향관계, 그리고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프라이버시의 매개효과는 선행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독립변인 중 지각된 유용성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프라이버시 우려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선행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 매개변인 또는 조절변인으로 분석되었던 신뢰와 개인혁신성을 본 연구모델에서는 독립변인으로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지각된 프라이버시도 지각된 가치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리하여 살펴본바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지 수준의 조절효과는 개인정보 보안과 직접 관련된 지각된 프라이버시 요인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기반수용모델과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을 통합하여 사용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자 하는 의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두 이론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수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 결과로 새로운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중요한 조절변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와 개인 혁신성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프라이버시 우려가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장애 요인이며, 지각된 유용성은 긍정적 요인임도 재확인하였으며, 지각된 유용성 등 선행 요인이 개

인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각된 프라이버시가 매개한다는 점도 새롭게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유용성과 프라이버시 우려가 중요한 선행 요인임을 재확인하였는데, 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사용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점(예: 맞춤형 금융 서비스, 개인화된 건강 관리 정보 등)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강력한 보안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관리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프라이버시 우려를 줄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신뢰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의 활성화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안 감사, 투명한 데이터 처리 절차 공개,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반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초기 수용자와 같은 혁신적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사용자의 인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신 법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사용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이용자 및 이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온라인 banking 사용자가 응답자의 대부분(99.1%)을 차지한다. 설문 수집 자체도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오프라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를 고려하지 못

하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디지털정보격차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정보 취약 계층과 지역 간 소득 격차와 주된 이용층에 따라 인터넷 활용 등 디지털 리터러시를 비롯한 관련된 역량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구통계적 요인과 이용자의 세부적인 정보를 함께 고려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자료 수집도 온라인 설문 대신 성별, 지역 등에 대한 인원 할당 방식의 대면조사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선행 요인 외에도 사회적 영향, 문화적 차이 등의 다양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서비스 이용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인지적, 역량적 요인을 다변화하고, 사회적 영향, 문화적 차이, 법적 규제 등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연구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복합적인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의 직업이나 연령대별로 관심 분야와 인식 정도, 그리고 기대 서비스 종류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확산 및 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마이데이터 앱 사용과 정보 제공 동의 방법 개선 요구는 실험 연구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이러한 혁신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된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나영, 김지수, 손예원, 이정빈, 김민정(2022). 금융소비자의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맞춤형 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의향.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8(1), 23-46.
- 김상희, 김종기(2017). 프라이버시 염려와 제도적 신뢰가 프라이버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전자상거래와 위치기반서비스의 비교: 전자상거래와 위치기반서비스의 비교. **한국산업정보학회 논문지**, 22(1), 69-87.
- 김수현(2022). 마이데이터 서비스 속성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10), 271-278.
- 김종기, 김상희(2012). 스마트폰 위치기반서비스에서 정보제공의도: 프라이버시 계산 관점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연구**, 21(4), 55-79.
- 박동근, 양성병, 윤상혁(2023). 개인의 마이데이터 제공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역량과 기관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24(1), 73-97.
- 박철우, 정해주(2012). 개인특성 및 시스템특성이 기술혁신제품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클라우드 컴퓨팅을 대상으로. **벤처창업연구**, 7(2), 63-76.
- 백한중(2019). **금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창용, 박현선, 김상현(2022).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특성과 수용의도의 관계: 개인혁신성과 기술적 보안성의 조절효과. **지식경영연구**, 23(4), 133-157.
- 이병관, 조은현(2009). 신제품 수용에 미치는 소비자의 혁신성과 조절초점의 효과연구. **광고학연구**, 20(1), 121-137.
- 이종섭, 최재섭, 최정일(2022). 오픈뱅킹 기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21(1), 1-19.
- 장형여, 이세진(2022). 한국과 중국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우려와 지각된 효능감이 광고회피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연구. **OOH 광고학연구**, 19(4), 59-79.
- 정해진, 이진혁(2022).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태도와 보호의도에 관한 연구: 프라이버시 냉소주의의 영향. **정보화정책**, 29(2), 37-65.
- 정해진(2022).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정보제공 행동 연구: 기술수용모델, 프라이버시 계산과 역설의 구조적 관계. **언론정보연구**, 59(3), 5-63.

- 조성훈, 진정숙, 박주석(2022). 금융상품 비교/추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빅데이터학회지**, 7(2), 173-193.
- 조용현, 동학립(2023).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8(3), 433-467. <https://doi.org/10.24878/TKES.2023.18.3.433>
- 지성우(2017).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방안. **헌법재판연구**, 4(2), 41-95.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0).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 허덕원, 성욱준(2021). 프라이버시 우려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혁신성의 다차원적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8(1), 22-42.

[국외 문헌]

- Chang, W. L., Diaz, A. N., & Hung, P. C. (2015). Estimating trust value: A social network perspective. **Information Systems Frontiers**, 17, 1381-1400.
- Chang, Y., Wong, S. F., Libaque-Saenz, C. F., & Lee, H. (2018). The role of privacy policy on consumers' perceived privacy.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5(3), 445-459.
- Chang, Y., Wong, S. F., & Lee, H. (2015). Understanding perceived privacy: A privacy boundary management model. **PACIS 2015 Proceedings**, 78.
- Culnan, M. J., & Bies, R. J. (2003). Consumer privacy: Balancing economic and justice consider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59(2), 323-342.
- Davis, F. D., Bagozzi, R. P., & Warshaw, P. R. (1989).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A comparison of two theoretical models. **Management Science**, 35(8), 982-1003.
- Dinev, T., Bellotto, M., Hart, P., Russo, V., Serra, I., & Colautti, C. (2006). Privacy calculus model in e-commerce? A study of Ital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15(4), 389-402.
- Dinev, T., Xu, H., Smith, J. H., & Hart, P. (2013). Information privacy and correlates: An empirical attempt to bridge and distinguish privacy-related concept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2(3), 295-316.

26. Dong, W., Asmi, F., Zhou, R., Keren, F., & Anwar, M. A. (2017, November). Impact of Trust and Perceived Privacy in B2C Mobile Apps among Foreigners: A Case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17 IEE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Business Engineering (ICEBE)* (pp. 189–194). IEEE.
27. Du, R., Du, H., & Wu, J. (2022, August). Media and Trust Influence Consumers' Acceptance of Self-driving Cars. *In 2022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ffic and Logistic Engineering (ICTLE)* (pp. 57–61). IEEE.
28. Hair, J. F., Ringle, C. M., & Sarstedt, M. (2011). PLS-SEM: Indeed a silver bullet.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9*(2), 139–152.
29. Hair Jr, J. F., Hult, G. T. M., Ringle, C. M., Sarstedt, M., Danks, N. P., & Ray, S. (2021).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using R: A workbook* (p. 197). Springer Nature.
30. Henseler, J., Ringle, C. M., & Sinkovics, R. R. (2009). The use of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in international marketing. *In New challenges to international marketing* (Vol. 20, pp. 277–319).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31. Henseler, J., Ringle, C. M., & Sarstedt, M. (2016).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of composites using partial least squares.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33*(3), 405–431.
32. Kehr, F., Kowatsch, T., Wentzel, D., & Fleisch, E. (2015). Blissfully ignorant: The effects of general privacy concerns, general institutional trust, and affect in the privacy calculus. *Information Systems Journal, 25*(6), 607–635.
33. Kim, H. W., Chan, H. C., & Gupta, S. (2007). Value-based adoption of mobile internet: An empirical investigation. *Decision Support Systems, 43*(1), 111–126.
34. Kim, Y., Park, Y., & Choi, J. (2017). A study on the adoption of IoT smart home service: Using Value-based Adoption Model. *Total Quality Management & Business Excellence, 28*(9–10), 1149–1165.
35. Krasnova, H., & Veltri, N. F. (2010). Privacy Calculus on Social Networking Sites: Explorative Evidence from Germany and USA. *Proceedings of the 43rd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pp.1–10.
36. Krasnova, H., Veltri, N. F., & Günther, O. (2012). Self-disclosure and privacy calculus on social networking sites: The role of culture: Intercultural dynamics of privacy calculus. *Wirtschaftsinformatik, 54*, 123–133.
37. Li, H., Sarathy, R., & Xu, H. (2010). Understanding situational online information disclosure as a privacy calculus.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51*(1), 62–71.
38. Lin, T. C., Wu, S., Hsu, J. S. C., & Chou, Y. C. (2012). The integration of value-based adoption and expectation-confirmation models: An example of IPTV continuance intention. *Decision Support Systems, 54*(1), 63–75.
39. Malhotra, N. K., Kim, S. S., & Agarwal, J. (2004). Internet users'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IUIPC): The construct, the scale, and a causal mode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5*(4), 336–355.
40. Matthews, L. (2017). Applying multigroup analysis in PLS-SEM: A step-by-step process.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Basic concepts, methodological issues and applications*, 219–243.
41. Moorman, C., Zaltman, G., & Deshpande, R. (1992). Relationships between providers and users of market research: The dynamics of trust within and between organiza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9*(3), 314–328.
42. Morgan, R. M., & Hunt, S. D. (1994). The commitment-trust theory of relationship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58*(3), 20–38.
43. OECD (2017).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Trust*. OECD Publishing, Paris.
44. Pal, D., Vanijja, V., Zhang, X., & Thapliyal, H. (2021). Exploring the antecedents of consumer electronics IoT devices purchase decision: A mixed methods study. *IEEE Transactions on Consumer Electronics, 67*(4), 305–318.
45. Pizzutti dos Santos, C., & Basso, K. (2012). Do ongoing relationships buffer the effects of service recovery on customers' trust and loyalty? *International Journal of Bank Marketing, 30*(3), 168–192.
46. Prince, C. (2018). Do consumers want to control their personal data? Empirical evi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110*, 21–32.
47. Ringle, C. M., Sarstedt, M., Sinkovics, N., & Sinkovics,

- R. R. (2023). A perspective on using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in data articles. *Data in Brief*, *48*, 109074.
48. Rogers, E. M. (1995). *Diffusion of Innovations* (4th ed). New York: The Free Press.
49. Sarstedt, M., Ringle, C. M., & Hair, J. F. (2021).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Handbook of Market Research* (pp. 587–632).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50. Saavedra, Á., Chocarro, R., Cortiñas, M., & Rubio, N. (2023). Impact of process and outcome quality on intention for continued use of voice assistants. *Spanish Journal of Marketing-ESIC*, (ahead-of-print).
51. Sirdeshmukh, D., Singh, J., & Sabol, B. (2002). Consumer trust, value, and loyalty in relational exchanges. *Journal of Marketing*, *66*(1), 15–37.
52. Wang, C. (2014).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erceived value in Mobile Government continuance use: An empirical research in China.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4*, 140–147.
53. Wang, T., Duong, T. D., & Chen, C. C. (2016). Intention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via mobile applications: A privacy calculus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6*(4), 531–542.
54. Wang, C., Teo, T. S., & Liu, L. (2020). Perceived value and continuance intention in mobile government service in China. *Telematics and Informatics*, *48*, 101348.
55. Xiong, S. (2013, November). Adoption of mobile banking model based on perceived value and trust. In *2013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Management, Innovation Management and Industrial Engineering* (Vol. 1, pp. 632–635). IEEE.

[URL]

56. 한국재정정보원 (2021, 5, 26). [Data for All]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https://blog.naver.com/kpfisnet/22235618676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_list

저 자 소 개



김 현 정 (Hyeonjeong Kim)

현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에서 정보시스템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 이미지 객체 탐지, 악성댓글 탐지 및 디지털 리터러시, 개인정보보호 등이다. 지금까지 Technology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지식경영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소비자정책 교육연구 등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권 수 현 (Soohyun Kwon)

현재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응용정보공학 전공 학부생으로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웹 프로그래밍, 자연어 처리,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가명정보 처리 등이다.



최 정 우 (Jeongu Choi)

현재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응용정보공학 전공 학부생으로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AI, 딥러닝, 데이터 보안, 암호화 기술, 개인정보보호 등이다.



김 범 수 (Beomsoo Kim)

현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소장, Asia Privacy Bridge Forum 의장으로 ICT 정책, 격차, 과의존, 정보보호 등의 이슈 중심으로 관련 연구와 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OECD 디지털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작업반 부의장을 역임하였으며, 한국대표로 국제기구에서 AI시대 공공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관련한 국제협력, 정책가이드 등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주요 관심 연구 분야는 AI 경영, 데이터 거버넌스와 공개 자료의 활용,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분석, 가상 자산, 국제협력정책 등이다.

〈 Abstract 〉

Motivating Factors for Providing Personal Data in MyData Services: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Hyeonjeong Kim^{*}, Soohyun Kwon^{**}, Jeongu Choi^{**}, Beomsoo Ki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privacy concerns, perceived utility, and awareness of the right to personal data self-determination on the effective use and expansion of MyData services, which are critical to the data economy. Integrating the value-based adoption model with privacy calculus theory, the research examines how perceived utility, privacy concerns, trust, and personal innovativeness influence perceived value, perceived privacy, and the inten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Data collected from an online survey of 442 MyData service users and prospective users were analyzed using PLS-SEM and Bootstrapping methods via SmartPLS 4. The results indicate that perceived utility positively affects the inten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while privacy concerns have a negative impact. Trust and personal innovativeness positively influence the intention to adopt MyData services, and the awareness of personal data self-determination rights moderates these intentions. Th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beneficial services that mitigate users' privacy concerns and build trust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MyData services. Additionally,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education and awareness campaign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personal data self-determination.

Key words: MyData service, Personal data self-determination rights, Perceived utility, Privacy concern, Inten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 Barun ICT Research Center, Yonsei University

** Global Leaders College, Yonsei University

*** Global Leaders College, Yonsei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